

등록번호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등록일자	2024. 6.
결재일자	2024. 6.
공개구분	공 개

베트남 국외출장 결과 보고

2024. 6.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순 서 -

I. 방문 개요	1
II. 한인 상공인·법조인 간담회	2
III. 베트남 법무부 및 소속기관	9
IV. 베트남 국회 법률위원회	18
V. 방문 성과 및 향후 계획	27
[붙임1] 베트남 개관	28
[붙임2] 베트남 법무부와 의 협업의향서	29

I. 방문 개요

☐ 일정: 3박 5일 (6. 11. 화 ~ 6. 15. 토)

☐ 방문 국가: 베트남(하노이)

☐ 출장단: 총 7명

연번	성명	직위
1	이완규	처장
2	최영찬	기획조정관
3	박지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4	이영진	법령데이터혁신팀장
5	채훈	사무관
6	강형석	사무관
7	도김폭	연구원(법령정보원)

☐ 일자별 일정

날짜	시간	주요 일정	비고
1일차 6.11.(화)	18:45 21:35	• 한국(인천) 출발 • 베트남(하노이) 도착	대한항공 (4h 50m소요)
2일차 6.12.(수)	11:00 18:00	• KOCHAM 방문, 한인 기업인 간담회(오찬 포함) •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저 만찬	
3일차 6.13.(목)	16:00 18:30	• 베트남 법무부 방문 • 베트남 법무부 주최 만찬	
4일차 6.14.(금)	09:00 23:10	• 베트남 국회 법률위원회 방문 • 베트남(하노이) 출발	대한항공 (4h 15m소요)
5일차 6.15.(토)	05:25	• 한국(인천) 도착	

Ⅱ. 한인 상공인 · 법조인 간담회

1 개요

- (일시/장소) 6. 12. (수) 11:00 / KOCHAM 회의실
- 참석자
 - 법제처 측 7명: 이완규 법제처장, 최영찬 기획조정관, 박지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이영진 법령데이터혁신팀장, 강형석 사무관, 채훈 사무관, 도김폭 연구원
 - 상공인 · 법조인 10명
: 홍선 하노이 KOCHAM 회장, 조상재 KOTRA 하노이 무역관 부관장, 최주호 삼성전자 복합 단지장, 김용섭 삼성전자 상무, 김지산 변호사(삼성), 조명래 한화 에어로 엔진스 법인장, 이홍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정섭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홍주 법무법인 세종 하노이 지사장 등

2 기관 개요

-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1992년 5월 설립
-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베트남 대정부 활동 등을 추진, 한-베 경제 협력과 무역 증대 노력
- 기업 고충처리 핫라인 개설 / 세무 · 관세 위원회 발족 / 비자 · 거주증 위원회 발족 / 베트남 지방기업에 찾아가는 세무 · 관세 · 노무 세미나 / 세계 상공인 그룹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 추진
- 베트남에는 현재 하노이 / 호치민 2개소가 있으며 각각 별도의 회장을 선출하는 등 별도 조직으로 운영 중

3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1:00~11:10	10'	인사말씀	법제처장, KOCHAM 회장
11:10~11:20	10'	수출 기업을 위한 법제처 주요 정책 소개	법제처장
11:20~11:50	30'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11:50~12:00	10'	처장님 정리 말씀 및 기념 촬영	참석자 전원

※ 간담회 이후 한인상공인·법조인과의 오찬 진행

4 주요 면담자 프로필

성명	홍 선 (1973년생)		
주요경력	○ 2007~2017 ○ 2018~2022 ○ 2022~현재 ○ 2022~현재 ○ 2023~현재	주베트남 KOCHAM 사무국장 주베트남 KOCHAM 부회장 제2대 재베트남 대한체육회 회장 베트남 국제상사중재원 중재인 주베트남 KOCHAM 15대 회장	
주요학력	○ 1995~2000	호치민 국립대학교 법학대학 졸업(상법)	

5 논의 내용

1. 인사 말씀

법제처

- 베트남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법제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해외 진출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지에서 활동하고 계신상공인·법조인분들을 뵙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KOCHAM

- 오늘 이렇게 한인 상공인·법조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법제 사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KOCHAM도 베트남의 법제 발전과 해외 진출 기업의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법제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처

-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리 국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처의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법제처는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정부·공공기관의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운영 중임.
- 영세·중소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의 한글 번역본을 조사·제공하고 있음.
- 또한, 번역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언어 전문가를 위촉해 감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베트남어 법령의 감수를 위해 베트남에 진출한 법무법인의 전문가들을 선정하였음.
- 베트남에서 활동하시면서 필요한 법령 정보를 제시해주신다면 수요에 맞춰 법령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음.
- 그리고,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오역을 발견한 경우, 의견주신다면 해당 번역을 신속히 보완하겠음.

법조인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해외에 진출한 법조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관련 사업이 발전하기를 기대함.
-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만큼, 제공하는 법령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해주시길 희망함.
- 다음 수요조사 시 베트남에 진출한 법조인들의 베트남 법령 정보에 대한 수요를 취합하여 제출하겠음.

3. 법제정보시스템 ODA

법제처

- 법제처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법령을 접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음.
- 현행·연혁 법령뿐만 아니라 판례, 현재의 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각종 위원회의 결정문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법령정보에 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법제처는 해당 시스템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여러 해외 국가에 전파하고 있으며, 베트남에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베트남의 법제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이를 통해 대한민국 법제 행정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경험을 공유·전수하여 베트남의 법제 행정 및 법제 정보화, 법령정보 관리업무 등에 대한 체계적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 추가로, 베트남 현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유학생, 여행객 등이 베트남 법령정보의 접근이 어려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법조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조인들도 많이 활용하는 우수한 시스템으로 최근 이의 기능 개선이 국민이 뽑은 정부 적극 행정 우수 과제 1위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베트남의 법제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현지 진출한 국민·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구축된 이후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함.

4. 법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법제처

- 베트남에는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베트남에 진출·정착하려는 국민·기업들이 법제도적인 측면이나 법령 이용과 관련하여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계신지 궁금함.

상공인

- 한국에서와 달리, 베트남에서는 정부의 법령 개정 사항을 기업들이 파악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가 정비되고 소관 부처, 지자체 등 법 집행 기관 간 법령 해석 및 적용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짐으로써 베트남의 투자 환경이 보다 개선되길 희망함.

법제처

-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법제 애로사항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과의 법제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개선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5. 마무리 말씀

법제처

-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내어 간담회에 참석하고 의견을 적극 제시해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법제처는 현지에 진출한 한인 상공인·법조인들의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법령 정보를 확대하고, 베트남과의 법제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 방문사진



Ⅲ. 베트남 법무부 및 소속기관

① 개요

- (일시/장소) 6. 13. (목) 16:00 / 베트남 법무부 청사
- 참석자
 - 법제처 측 7명: 이완규 법제처장, 최영찬 기획조정관, 박지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이영진 법령데이터혁신팀장, 강형석 사무관, 채훈 사무관, 도김폭 연구원
 - 법무부 측 11명
 - : 레 타잉 룡(Le Thanh Long)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 응우옌 반 꾸웅(Nguyen Van Cuong) 법률전략과학연구소장, 도안 트링 끼엔(Doan Trung Kien) 하노이 법률 대학 총장 응우옌 후 후옌(Nguyen Huu Huyen) 국제협력국 국장 외 7명
 - ※ 법률전략과학연구소 및 하노이 법률대학은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베트남 법무부 제안**에 따라 법무부 회담에 참석, 함께 안건 논의
 - ※ 회담 이후 베트남 법무부 차관(응우옌 칸 응옥, Nguyen Khanh Ngoc) 및 국회 법률위원회 위원장(호앙 타잉 퉁, Hoang Thanh Tung) 주재 만찬 참석

② 기관 개요

□ 법무부 기능 상세

- 법제 심사·정비 업무
 - 정부입법계획 수립
 - 정부 법령안 초안 심사
 - * **(심사대상)** 법률부터 총리령까지 법무부에서 심사, 부령과 자치법규는 해당 기관에서 심사하되 법무부에서 사후 심사
 - * **(심사기준)** 법률안 제·개정 필요성, 법률안 적용 범위, 합헌성 및 적합성, 국제규범과의 조화, 법률안의 실행가능성(이행·집행 가능성) 등을 심사

- 정부가 발의하지 않은 법령안에 대한 정부의견 제시
- 형법 · 민법 · 민사집행법 등 주요 법률의 초안 작성
- 정부 부처 등의 법령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개정을 제안하거나 총리의 지시에 따라 직접 개정
- 법령안 초안 작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시
- 입법절차 개선을 위한 방법의 연구 · 제안
- **법령 집행 및 규범 문서의 관리, 법령 보급과 교육**
 - 정부 부처, 부처급 기관, 지방기관 등의 법령 집행 모니터링
 - 법령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자문
 - 법령의 보급 및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 법령의 보급과 교육 서비스를 위한 간부 양성
- **민사재판의 집행, 사법행정, 기타 국내 사법 활동에 관한 업무**
 - 전국적으로 민사재판 결정의 원활한 집행 · 이행을 위한 활동
 - 변호사, 법률 컨설팅, 공증, 경매, 기업 중재 등과 관련한 안내

□ 법률전략과학연구소 개요

- 베트남 법무부 소속 연구기관으로, 법무부 업무에 대한 연구 수행
 - 법무정책 · 전략 개발
 - 법제 개선 연구
 - 법률안 작성 · 시행 관련 연구
 - 사법연구
- 정부 부처 법과학 · 정보 분야의 중심 기관으로 기능
- 아시아 국가 등 외국법제 자료 수집
- 법제정보시스템 구축 사업(ODA) 관련 기관

□ 하노이 법률 대학 개요

- (연혁) 1979년 10월 “하노이 법학 대학(Hanoi Legal Studies University)” 설립, 법학부 설치
 - 1982년 법무부 결정에 따라 제1사법전문고등학교와 하노이 법원 공무원 학교가 하노이 법학 대학에 통합
 - 1993년 “하노이 법률 대학(Hanoi Law University)”으로 명칭 변경
 - 2013년 4월 총리 결정에 따라 하노이 법률 대학과 호치민 법률 대학은 법무 공무원 양성을 위한 핵심 대학으로 지정
 - 2020년 연구 중심의 고등 교육 기관, 핵심 법률가 양성 대학, 법률 연구 및 보급 선도 기관이 되기 위한 ‘2030 대학 발전 전략’ 발표
- (학부) ① 정치학 ② 행정법 및 헌법 ③ 형법 ④ 민법 ⑤ 경제법 ⑥ 국제법 ⑦ 무역법 ⑧ 외국어 ⑨ 체육교육

③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6:00~16:20	20′	인사말씀	법제처장, 부총리
16:20~16:50	30′	협력 안건 논의	법제처장, 부총리
16:50~17:00	10′	협업의향서 체결식 및 사진 촬영	법제처장, 부총리

④ 주요 면담자 프로필

성 명	레 타잉 룡 Le Thanh Long (1963년생)	
학 력	○ 구소련 아제르바이잔대학 법학학사 ○ 캐나다 켈거리대학 법학석사 ○ 일본 나고야대학 법학 박사	
주 요 경 력	○ 2008.12. 법무부 법률개선총괄과 과장 ○ 2011.10. 법무차관, 공산당 위원회 위원 ○ 2014. 4. Ha Tinh 주 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서기 ○ 2015. 9. 법무차관,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 2016. 4. 법무장관, 공산당 중앙위원 ○ 2024. 6. 6. 부총리 임명	

5 논의 내용

1. 인사 말씀

법무부

- 베트남과의 법제교류협력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해주신 이완규 법제처장님 및 방문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2022년 한국과 베트남 간의 관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양국의 협력 관계는 더욱 발전하고 있음.
 - 오늘의 만남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대한민국간의 법제 교류 협력 역시 한층 더 발전하길 희망함.

법제처

-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 양국 관계가 격상되는 등 현 정부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은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 최근 베트남 법무부와 법제처도 법제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과 관련하여 활발한 교류 협력을 이어오고 있음.
- 한국과 법제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어 주신 레 타잉 룡(Le Thanh Long) 부총리께 감사드립니다

2. 법제정보시스템 ODA

법제처

- 먼저 오늘 체결할 협업의향서의 주제인 법제정보시스템 ODA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현재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ODA 사업은 한국의 무상 원조 관련 기관 간의 회의인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음.

- 본 사업은 베트남의 법제정보시스템을 진단,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1단계 사업으로 이 사업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실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향후 2단계 ODA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늘 체결하는 협업의향서를 바탕으로 법제처와 베트남 법무부 간의 견고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함.

법무부

- 한국의 우수한 법제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기 위한 ODA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서 지속적·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베트남 법무부 역시 1단계인 컨설팅 사업을 넘어 2단계인 실제 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이어지길 강력히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가급적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함.

3.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J)

법제처

- 기후 변화, AI 등 신기술의 발전과 같이 다가올 미래 변화에 아시아 국가들이 법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법제처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법제 분야 협력 체계로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설립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의 아시아 지역 법제 업무 담당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음.

- 베트남 법무부에서도 아시아 지역 내 법제 업무 담당 기관 간의 협의체를 설립하려는 노력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법무부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가 설립된다면 아시아 지역 내 법제 분야 협력을 증진함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 법무부에도 참여를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협의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주신다면 베트남 법무부도 협의체를 설립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4.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법제처

- 법제처는 매년 아시아의 법제 전문가들과 함께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작년 11회 회의 때 베트남 법무부에서 참여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올해 4월 EU에서 AI의 위험성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통과되었으나, 한편으로 AI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글로벌 사회에서는 많은 법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올해 11월 1일 개최될 예정인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AI 기술이 법률 분야에 적용된 미래 유망 산업인 ‘리걸테크’를 주목하고 ‘아시아의 리걸테크 발전 현황과 국가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선정했음.
- 가능하다면, 올해에도 베트남 법무부에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 AI의 발전은 베트남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주제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AI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목하여 AI를 적극 활용하는 반면,
 - 인력 감축, 환각(hallucination) 등 AI의 부정적인 측면을 우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음.
- 올해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매우 시의 적절한 주제를 선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법제처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해주신다면 베트남 법무부에서도 적극 참석하겠음.

법제처

- AI와 관련해서는 한국 역시 배우는 입장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함께 협력하며 배워나갈 수 있기를 희망함.

5. 상공인 건의사항

법제처

- 어제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인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음. 이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간의 경제 교류를 보다 확대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의사항을 들어 말씀드림.
- 베트남에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법령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활용함에 있어 한인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함.
 - 한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은 이들과 협력하는 베트남 중소기업 등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한인 상공인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청취하고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 베트남 역시 입법예고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함한 정책제안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토록 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 한국은 베트남 내 직접투자액 1위 국가로 한인상공인들은 베트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 시에도 한인상공인들을 중요 이해관계자로 고려하고 있음.
- 법령 개정 과정에서 기업인 협회의 의견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므로, 한인상공인들이 해당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6. 마무리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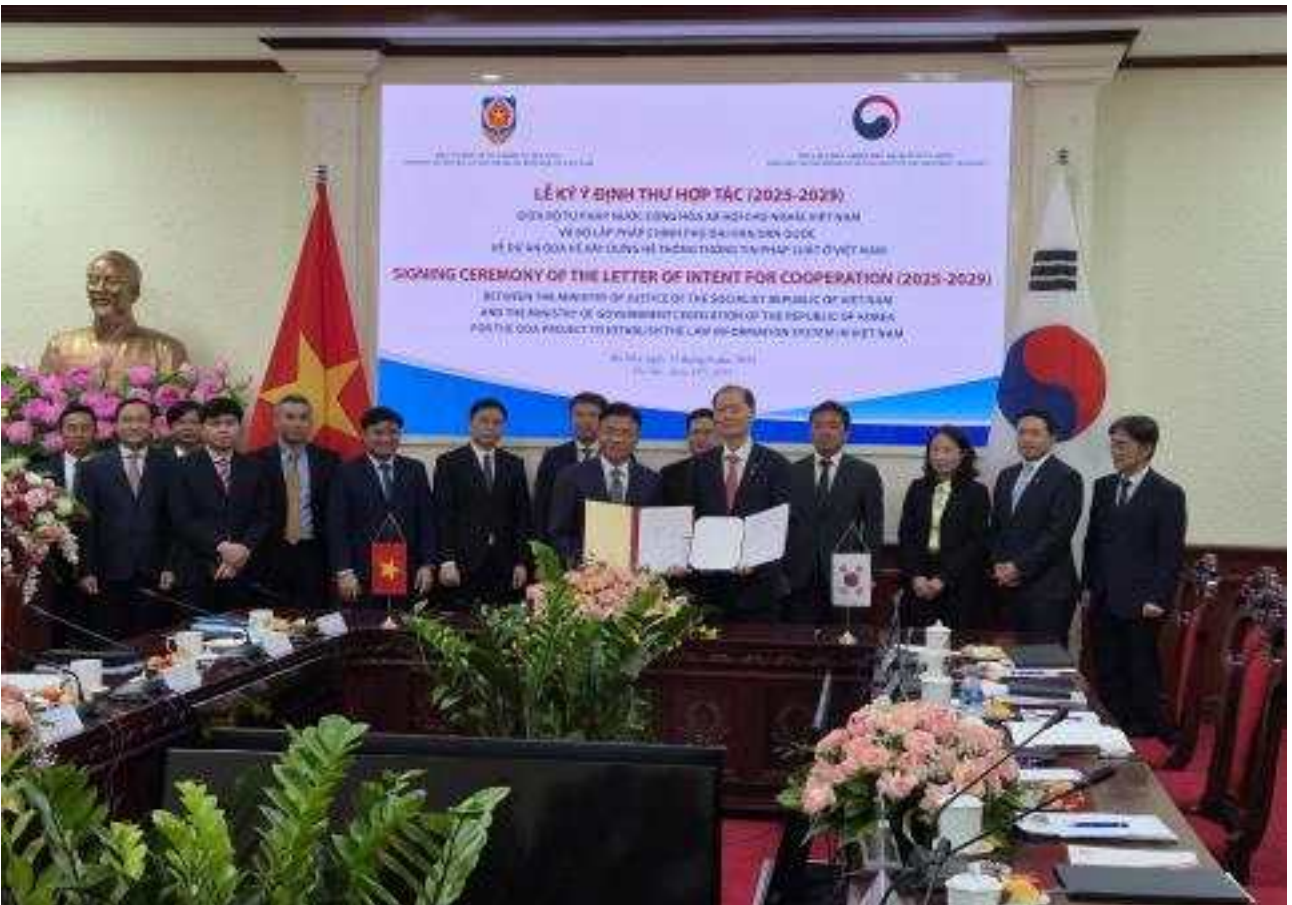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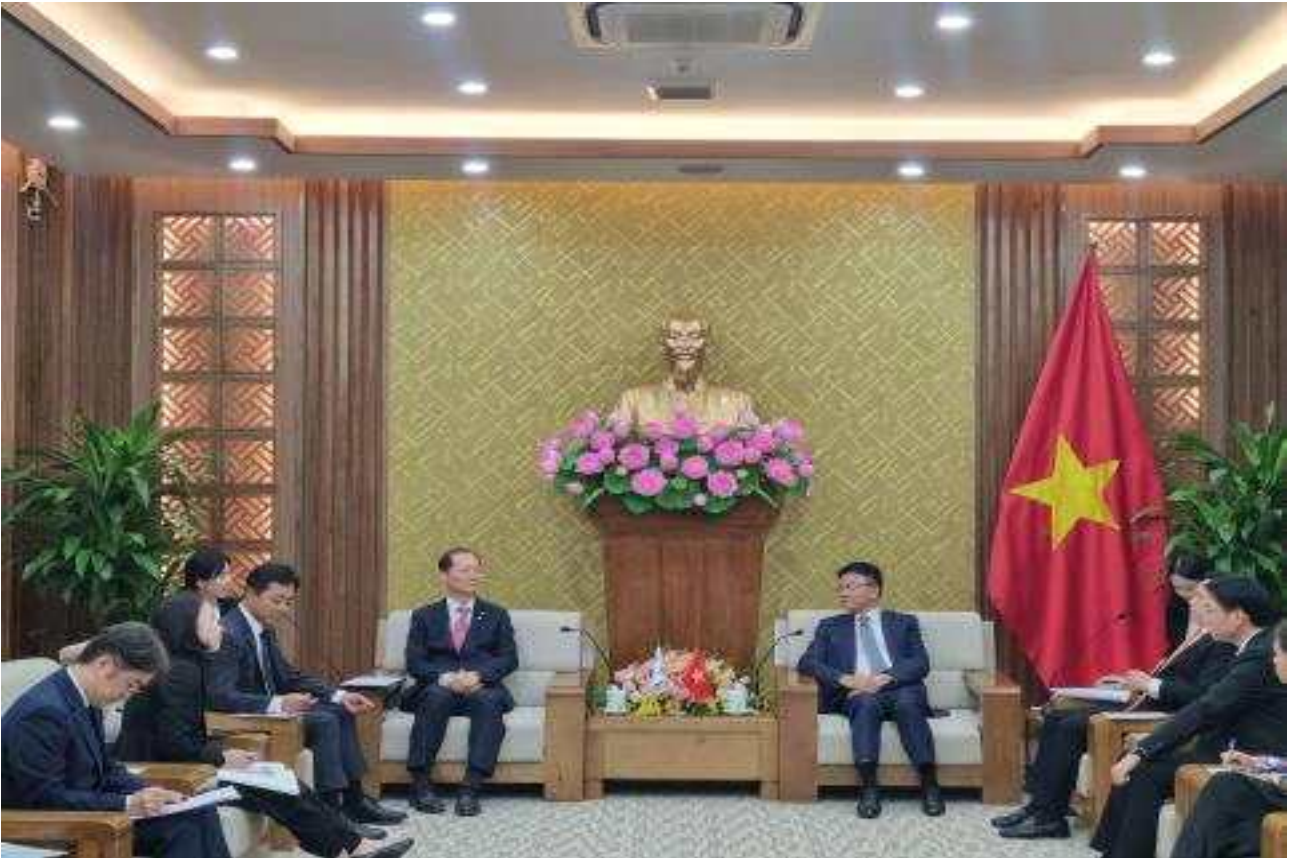
법제처

-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법제처를 환대해주시고 협업의향서를 체결하는 것에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체결한 협업의향서가 두 기관 간의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

- 법제처장님께서 베트남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주시고 협력 안건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법제정보시스템 ODA 사업은 베트남의 법제 행정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희망함.
- 또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와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는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참여를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 방문사진



IV. 베트남 국회 법률위원회

1 개요

- (일시/장소) 6. 14. (금) 09:00 / 국회 법률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법제처 측 7명: 이완규 법제처장, 최영찬 기획조정관, 박지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이영진 법령데이터혁신팀장, 강형석 사무관, 채훈 사무관, 도김폭 연구원
 - 국회 법률위원회 측 6명: 호앙 타잉 퉁(Hoang Thanh Tung) 위원장, 부위원장 외 4명

2 기관 개요

□ 베트남 국회

- 단원제 / 총원 500명, 현원 494명 / 임기 5년
 - 국회의장은 쩌 타잉 먼(Tran Thanh Man, '24.5.21. 선출)
- 총선은 5년마다 실시되며, 후보자는 자발적 추천으로도 입후보 가능하나 국회 상무위원회 및 조국전선위원회의 심사 통과 필요
- 헌법과 법률 제·개정 및 입안, 국가 기구 조직 및 활동 규정, 최고 감찰권 행사, 경제사회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 결정 등의 권한 보유
- 국회 상무위원회가 국회 소집, 국회 폐회 시 국회 업무 수행, 헌법 해석권을 행사하며 국회에서 선출된 18명*으로 구성

* 국회의장, 4명의 부의장, 민족위원회(Ethnic Council) 위원장, 9개 위원회(Committee) 위원장, 국회 사무총장, 국회의원 사무위원회(Commission) 위원장, 민원위원회(Commission) 위원장

* 위원회(Committee) 구성 : ①법률위원회(위원장 : 호앙 타잉 퉁, Hoang Thanh Tung) ②사법위원회 ③경제위원회 ④재정·예산위원회 ⑤국방·안보위원회 ⑥문화·교육위원회 ⑦사회위원회 ⑧과학기술환경위원회 ⑨대외관계위원회

□ 베트남 국회 법률위원회(Law Committee)

- 국회 법제업무기구로서, 발의된 법률안을 심사·의결
 - 「법률규범문서 공포법」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법령 초안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국회 법률위원회에도 보고
 - 국회 법률위원회와 법무부 및 관련 기관은 합동으로 해당 법령안에 대한 연구 및 검토를 진행하며, 법령안의 수정이 완료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
- 국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 및 시행령 입안
- 법학이론, 법제사 및 비교법학 연구 진행, 법제선진 업무 추진

3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고
09:00~09:20	20'	인사말씀	법제처장, 법률위원회 위원장
09:20~09:50	30'	교류 협력 안건 논의	법제처장, 법률위원회 위원장
09:50~10:00	10'	사진촬영	참석자 전원

4 주요 면담자 프로필

성 명	호앙 타잉 퉁(Hoang Thanh Tung) (1966년생)	
학 력	법학 학사 법학 석사	
주 요 경 력	1990~2003 법무부 형사-행정 법제국 전문가 2003~2007 법무부 법률규범문서 심사국 사무관 2007~2011 국회 부의장 비서 2011~2016 국회 법률위원회 위원 2016~2019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2019~ 법률위원회 위원장 ('21년까지 14대 국회, '21년 이후 15대 국회)	

5 논의 내용

1. 인사 말씀

법제처

- 현재 베트남 국회는 7차 회의 중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제처 방문단을 환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베트남 국회 법률위원회는 법령안에 대해 사전 심사함으로써 법령이 헌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현행 법률과의 체계성을 유지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법제처와 역할이 유사하다고 생각함.

법률위원회

- 베트남 법무부와 회담 및 만찬 자리를 갖는 등 바쁜 출장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률위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법제처와 법률위원회의 역할이 유사하다는 법제처장님 말씀에 동의하며, 앞으로 다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2. 법제정보시스템 ODA

법제처

- 현재 법제처는 베트남의 법제정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만약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베트남의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함.
-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법제정보시스템이 법제처의 법제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듯이 법률위원회의 법제 심사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대한민국 법원에서조차 베트남 법원에 전산화 프로젝트를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각 영역에서 전산화가 지원되면 나중에는 각 시스템을 연결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할 것임.
- 베트남 국회에서도 향후 법무부, 법원 등 각 기관의 시스템을 연결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함.

법률위원회

- 국회 법률위원회는 베트남 법무부와 적극 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ODA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임.
- 당에서는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시스템 구축임.
- 베트남의 법제정보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법령 정보의 통일성, 국민들의 법령 정보 접근 용이성, 법령 정보 제공의 적시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국가 운영에 적극 적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을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법무부에서 시범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면, 이후 다른 곳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법률위원회는 민사·행정·국가기관(사법기관 제외)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 경우에도 심사기관의 법령안 심사 시 심사 절차에 참여하여 협업하고 있으므로,
- 법제정보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고 다른 기관으로 확산된다면 법률위원회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법제처

- 기후 변화, AI와 같은 신기술의 발전 등이 가져올 미래 변화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연구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법령을 제·개정해야 하며,
 - 미래 변화에 비슷한 영향을 받기 마련인 인근 지역의 국가들은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발굴, 함께 규율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EU에서는 AI의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 시킴으로써 EU 소속 국가들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했음.
 - 아시아 국가들은 문화와 사회적 상황이 유사하므로 EU와 같이 서로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법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설립하고자 함.
 - 현재 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었으며,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의 경우 5월 8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액션플랜을 체결했음.
 - 어제 있었던 베트남 법무부와의 회담에서도 부총리께서 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해주셨음.
- 법제처는 2024년 말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025년 말에 공식적으로 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으로, 법률위원회에서도 협의체 구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률위원회

- 법률위원회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제안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법제 분야에서 함께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함.
- 전 세계는 이전과 달리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사이버 보안 위협, 첨단 기술의 발전 등이 대표적임.
 -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
- 관련 자료를 주신다면 국회 법률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협의체 설립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법제처

- 법제처는 매년 아시아의 법제 전문가들과 함께 법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올해 11월 1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AI 기술과 관련하여 주제를 설정했음.
 - 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AI 기술이 법률 분야에 적용된 미래 유망 산업인 ‘리절테크’를 주목하고, ‘아시아의 리절테크 발전 현황과 국가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법제처는 법제정보시스템에도 AI 기반의 서비스를 도입하여 보다 상세한 답변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나,
 - AI 기반의 서비스의 도입 수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

- 특히 AI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민간 기업의 바람직한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국가는 법령, 판례, 결정례 등 중요한 법령 정보를 리걸테크 기업에게 제공하고, 리걸테크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AI 기반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AI 기술에 대한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간 협력방안 등은 법률위원회에서도 관심 있을 내용이라 생각하며, 올해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률위원회

- AI와 리걸테크는 글로벌 사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시의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함.
- AI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인류는 AI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아는 바가 적음.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5. 기타 질의 응답

법률위원회

- 베트남은 현재 공중에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참고 사례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음. 한국은 공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생각함.
- 한국의 공중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 한국은 변호사에게 공증 권한을 부여하고 법무부에서 변호사들의 공증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음.
- 법제처는 베트남에서 공증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드리는 등 적극 협조하겠음.

6. 마무리 말씀

법제처

- 법제처의 법제교류협력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베트남 국회 법률위원회와 법제처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희망함.

법률위원회

- 베트남은 항상 한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함.
- 베트남은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이나 법제 행정이나 시스템 차원에서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많으며,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법제처와의 법제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함.

6 방문사진



V. 방문 성과 및 향후 계획

□ 방문 성과

- (법무부) 법제정보시스템 ODA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업의향서(2025-2029) 체결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및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소개하고 베트남 법무부의 참여 의지 확인
 -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상공인·법조인들의 법제 관련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지원 요청
- (국회 법률위원회) 법제정보시스템 ODA,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등 베트남과의 법제교류 협력 사항을 공유하고, 법률위원회의 긍정적인 답변 도출
 - 법률위원회의 법제처와의 지속적인 법제교류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공증 관련 법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 약속
- (한인 상공인·법조인 간담회) 현지에서 활동 중인 상공인·법조인들을 대상으로 법제처의 해외 진출 기업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법제 애로사항 청취

□ 향후 계획 : 법무부·법률위원회와의 지속적인 법제 교류 협력 추진

- 법제정보시스템 ODA 사업 추진을 위해 내부 심사 진행 상황 공유 및 현지 조사(10월 예정) 등 관련 절차 추진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소개자료 공유(6.21.) 및 추가 요청사항 대응
- 이번 회담에 대한 감사 서한(6월 4주) 및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초청 서한 발송(9월 중)
- 법률위원회 방한(연말 예정) 시 법제처 방문 일정 조율

□ 일반사항

-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 수도: 하노이(인구 840만 명)
- 인구: 1억 77만 명(2024.4월 기준, IMF)
- 면적: 330,341km²(한반도의 1.5배, 2023, CIA)
- 민족: 비엠티족(86.2%) 및 53개 소수민족
- 종교: 불교(14%), 가톨릭(7%) 등
- 기후: 북부는 아열대성, 남부는 열대몬순
- 언어: 베트남어(공용어)
- 시차: 한국시간 -2시간

□ 정치현황

- 정부형태: 사회주의 공화제(공산당이 유일 정당)
- 주요인사
 - 당서기장: 응우옌 푸 쑹(Nguyen Phu Trong)
 - 국가주석: 톰 램(To Lam)
 - 총리 : 팜 밍 쟁(Pham Minh Chinh)
 - 국회의장: 쩌 타잉 먼(Tran Thanh Man)
 - 외교장관: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 의회: 임기 5년 단원제(의석수 500석)
 - 현, 제15대(2021-2026년) 국회의원 493명

□ 경제현황(2024.4월 기준, IMF)

- GDP: 4,658.1억 불(우리나라의 27%)
- 1인당 GDP: 4,622.5불(우리나라의 13%)
- GDP성장률: 5.8%
- 물가상승률: 3.7%
- 실업률: 2.1%
- 교역액: 6,807억 불(2023년 기준, 베트남 통계총국)
 - 수출: 3,547억 불
 - 수입: 3,260억 불
- 환율: 1달러=23,983동(2024.1월 평균 기준, IMF)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 92.12.22. 외교관계 수립
- 공관: 92.12.22. 상주대사관 설치
 - 최영삼 대사(2023.8. 부임)
 - 부 호(Vu Ho) 대사(2024.3. 부임)
- 교역: 203.5억 불(2024.3월 기준, 한국무역협회)
 - 수출: 132.6억 불
 - 수입: 70.9억 불

- 투자(신규법인 신고기준, ~2023년 누계)
 - 대 베트남: 488.7억 불, 27,792건(한국수출입은행)
 - 대 한국: 1.35억 불, 616건(산업통상자원부)
 - ※~2024.3월까지 누계 : 1.39억 불, 660건
- ODA: 24.7억 불(1987-2022 누계, 총지출기준, OECD)
 - 무상원조: 7.9억 불(2022년 6,579만 불)
 - 유상원조: 16.8억 불(2022년 5,633만 불)

□ 주요인사 교류현황

- 방한
 - 13.7. 응우옌 싱 홍 국회의장
 - 14.10. 응우옌 푸 쑹 당서기장
 - 14.12. 응우옌 떼 중 총리
 - 18.12. 응우옌 티 킴 응언 국회의장
 - 19.11. 응우옌 쑤언 폭 총리
 - 21.12.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 22.12. 응우옌 쑤언 폭 국가주석
- 방문
 - 13.1. 강창희 국회의장
 - 13.9. 박근혜 대통령 국민 방문
 - 15.3. 정의화 국회의장
 - 17.4. 정세균 국회의장
 - 17.8. 양승태 대법원장
 - 17.11. 문재인 대통령(APEC 정상회의)
 - 18.3. 문재인 대통령 국민 방문
 - 18.9. 이낙연 국무총리
(쩌 다이 쩡 국가주석 조문)
 - 20.10. 박병석 국회의장
 - 23.1. 김진표 국회의장
 - 23.6. 윤석열 대통령 국민 방문

□ 재외국민 현황

- 베트남 내 한국인: 178,122명(외교부, 2023년 기준)
- 한국 내 베트남인: 285,104명(법무부, 2024.3월 기준)

□ 인적교류 현황(2024.3월 기준)

- 한국→베트남: 1,232,877명(베트남 관광청)
- 베트남→한국: 109,792명(한국관광공사)

□ 북한과의 관계

- 50.1.31. 수교(당시 월맹)
- 50.10.25. 상호 상주대사관 설치
- 공관 현황
 - 주베트남북한대사 공석
 - 레 바 빙(Le Ba Vinh) 대사(2018.7. 임명)

**대한민국 법제처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법무부 간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위한
5개년(2025-2029) 협업 의향서**

대한민국 법제처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법무부(이하 두 기관을 합쳐 "양 당사자"라 한다)는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위하여 2024년 6월 13일 다음 사항들에 대해 5개년(2025-2029년) 협업 의향서를 체결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1. 협력 활동

양 당사자는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이하 "ODA 사업" 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법무부(이하 “베트남 법무부” 라 한다)는 ODA 사업에 필요한 베트남 법령정보(헌법, 법률, 부령, 의결서, 명령서, 결정서 등)를 제공한다.

(2) 대한민국 법제처는 ODA 사업의 법제 및 시스템 분야 자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베트남 법무부는 그 지원에 필요한 행정처리 등을 제공한다.

(3) 양 당사자는 ODA 사업이 완료된 이후, 이를 토대로 한 본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베트남 법무부 및 관련기관의 기관장급 또는 실무자급 방문, 세미나·국제회의 참여 등을 통해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4) 대한민국 법제처는 법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초청연수, 현지연수 등 베트남 법무부 공무원 및 법률 입안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 양 당사자는 양국 간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령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쉽고 편리하게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양 당사자는 ODA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법제처를 대표하여: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
- 베트남 법무부를 대표하여: 법무부 국제협력국

2.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관련 역량 강화

양 당사자는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 (1) ODA 사업과 이를 토대로 한 본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유지관리 기술 지원
- (2) 양 당사자 간 전문 인력의 상호 방문
- (3) 양 당사자 간 법제 관련정보, 경험 및 전문 지식의 공유
- (4) 양 당사자의 법제정보시스템에 관한 비교 연구 검토 및 이행
- (5) 양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에 따른 그 밖의 협력 활동 마련

3. 재정적 합의

- (1) 이상의 협업 의향서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양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외에는 이용 가능한 예산과 그 밖의 자원의 범위에서 각자 부담한다.

(2) ODA 사업 종료 후, 양 당사자는 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 조건을 준비하는 것을 노력해야만 한다.

4. 일반 조항

(1) 양 당사자는 이 협업 의향서를 통해 합의한 협력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그 밖에 이 협업 의향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 제처장과 베트남 법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그 합의는 이 협업 의향서에 따른 양 당사자 간 합의로 본다.

5. 최종 규정

이 협업 의향서는 ODA 사업 승인서 정본 수령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이 협업 의향서를 통해 합의된 협력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에 대한 증거로, 대표자가 이 협업 의향서에 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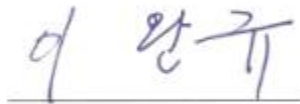
이 협업 의향서는 2024년 6월 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한국어본, 베트남어본, 영어본이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 법제처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표하여

법무부를 대표하여



이 완 규

레 타잉 룡(Le Thanh Long)

대한민국 법제처장

베트남 법무부 장관